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개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화장실 개선공사 대상 26곳 휴게소 11월 말까지 완공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가 명품휴게소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권 휴게소 화장실 개선공사 대상 총 26개 휴게소 중 2일까지 14개소가 완공됐고 11월 말까지 추가로 12개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호텔급 시설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명소, 특산물, 명화(名畵) 등을 테마로 꾸민 명품화장실로 거듭나게 된다.

먼저 지난 18일 오픈한 정읍(순천)휴게소는 고전영화인 '로마의 휴일'을 컨셉으로 다양한 소품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꾸몄다. 특히 아폴로 우주선 모양의 아동 전용 화장실을 선보여 가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1일 오픈한 군산(서울)휴게소는 호텔 로비를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와 파우더룸, 거치형 교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했다.

아울러, 중세부터 현재까지의 화장실의 역사를 테마로 구성해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컴퓨터로서의 휴게소의 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도 했다



군산휴게소 파우더룸

정읍(순천)휴게소의 경우는 수림과 그늘막을 활용해 'Auto수면장'을 조성했다

고객이 수면장 내 차량을 주차하고 옆 차량에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장시간 수면고객의 편의를 위해 wake up 서비스(특정시간 알람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읍(순천)휴게소는 군산(목포)휴게소와 함께 단체 행락객의 휴게소 내 취식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피크닉 파크를 개설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중장에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행락

객이 노상 또는 주차터량 옆에서 단체로 취식을 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고 일반 고객과의 마찰도 발생했지만 단체고객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좀 더 쾌적하게 고속도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명국 전북본부장은 "화장실 개선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고객에게 좀 더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다가가기에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창조경영 농협 조합장부문을으로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선정됐다.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 올해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인물대상에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수상했다

지난 1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창조경영 농협 조합장부문'으로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장을 수상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이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장, (사)한국국무배우생산자연합회 이사, (사)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부안지 역분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3개 농협을 합병하여 빠른 귀는 지구노력으로 10년도에 합병순실금과 자본잠식을 모두 정리하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농협에서는 명실상부 합병한 농협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업농촌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과 영농자제비 인상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면서 "농산물이 재고를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고 복지시설의 사각지대인 농촌에 농협이 앞장서서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연합매일신문, 국회신문이 주최하고 데일리머니, 한국행정일보, 컨슈머리포트, 일간건설이 주관해 매년 각 분야에서 남다른 수훈을 보인 수상자를 선정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2차 인파 몰려

모델하우스에 오픈 첫날 5000명 방문

태영건설이 지난 29일 오픈한 '에코시티 데시앙 2차'의 모델하우스에 구름인파가 모였다. 태영건설측은 오픈 첫날 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오픈 후 3일간 총 1만 5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에코시티 데시앙 2차는 전주시 내에서 보기 드문 대형 실내체육관, DIY공방 등 명품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 점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며 "휴가철 무더운 날씨에도 에코시티 데시앙 2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청약과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 된다"고 말했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은 지

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59~98㎡, 643가구, 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59~84㎡, 708가구로 총 1351가구가 공급된다.

태영건설은 단지가 관상형 타워형 혼합형 구성은 물론 전 가구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타입에 따라 4~5베이 맞춤형 구조, 데시앙 버스 일파룸,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는 두 블록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8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신광영기자

편의점 생수 매출 연평균 20% ↑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최근 5년간 편의점 생수 매출도 연평균 20%가 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생수는 2012년부터 전년 대비 매출이 23.9%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는 24.7%, 2015년에는 24.0% 판매율이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도 23.0% 매출이 증가했다.

생수 판매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CU 측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소량의 생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용량별 생수의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야외에서 마시는 500ml 소용량보다 집에서 마시는 대용량 제품의 매출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하림, 밥으로 즐기는 일품요리 3종 출시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집에서 지역별미를 간편하게 밥으로 즐길 수 있는 신규 브랜드 밥은 요리다를 출시하고, '인동식 찹쌀 볶음밥'과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황동식 비빔밥' 등 냉동밥 3종을 선보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곡이 외식을 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편하게 대우가만 하면 일품요리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밥은 요리다'는 찹쌀이나 닭갈비 같은 인기 외식 메뉴의 주요리를 먹고 난 다음 화형점으로 즐길 수 있던 볶음밥을 제품화함으로써 기존 냉동밥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오랜 지역 별미 황동식 비빔밥을 상품화한 것도 눈에 띈다. 김제 평야에서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에 국내산 닭고기와 국내산 채소 등 엄선된 재료를 더해 맛과 질을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림 '인동식 찹쌀 볶음밥'은 닭

고 찹조림한 소스가 밥알에 속속 배어들어 있으며,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은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이 화끈하게 입맛을 자극한다. 이제는 전국 각지가 된 익산의 향토음식 '황동식 비빔밥'은 갖 지은 밥에 닭고기 육수와 쇠고기, 시금치, 콩나물, 당근, 알기리 등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건 강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파 기름으로 황동식 비빔밥 특유의 알싸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림은 신규 브랜드 밥은 요리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5일(월)까지 하림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rimarket>)에서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후 URL과 함께 신제품 3종을 활용해 만들고 싶은 특별한 '한 그릇 짜짜 식사' 레시피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한다. /익산=장영원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